



전은, 다문화가정 중학생들과 '다다캠프'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진로 탐색과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여름방학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북은행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2026 다(多)채로운 다(多)양한 문화체험 '여름방학 다다캠프'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JB금융그룹의 다문화 분야 핵심 사회공헌사업 가운데 하나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와 진로를 경험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경제교육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의미를 뒀다.

캠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중학생 80명과 JB금융그룹 직원들로 구성된 'JB금융그룹 씨앗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융경제교육을 비롯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 액티비티 활동, 과학·공학 콘텐츠 강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과학·공학 콘텐츠 강연에는 (주)루트다이나믹스 김블 박찬후 대표가 참여해 '이쪽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 단순한 강연에 그치지 않고 '부드 러웨이가 챌린지'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아티스트 '신스(Since)'가 참여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꿈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남원시(시장 양승모)는 10일,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2기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원시에서는 1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자립에 필요한 복돈 마련을 돕는다.

이번 2기 교육은 국민연금공단 장현석 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자산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와 자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옥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사매면, 13일부터 경로당 방역소독 실시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3일부터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은 무더위 속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실내·외를 집중 소독해 모기 등 각종 위생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식록 사매면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려운 농촌 주민에게 먹거리 서비스 제공

전북자치도-국민연금-유등사회적협동조합, 순창 '이동 정육점' 운영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 유등사회적협동조합과 손잡고 장보기가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정육점 순창곳간'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매점이 줄어 신선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지역에 필요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공헌기금 3,000만 원을 유등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관 간 협력에 나서고, 유등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 정육점 순창곳간'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정육점 순창곳간'은 정육점 등 먹거리 판매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육류를 구매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창군에서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과 연계해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유등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1월 설립된 지역 기반 사



회적협동조합으로 돌봄공동체 운영과 주민복지·생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동 정육점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채우석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순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해 준 국민연금공단과 현장에서 주민 생활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유등사회적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기전대, 청소년 댄스·E스포츠대회 성료

E스포츠 62팀·댄스 13팀 참가... 철권 이벤트·인생네컷 촬영 공간 등 운영

전주기전대학이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재능과 열정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댄스·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찬)은 전주청소년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기승전결 전북 청소년 댄스·E스포츠대회'를 지난 8일 전주기전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와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오전 E스포츠대회와 오후 댄스대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E스포츠 62팀과 댄스 13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오전 E스포츠대회에서는 치열한 경기 끝에 우석고등학교 'Never give up' 팀이 우수상을, 전라중학교 '펍'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상팀에는 상패와 함께 우수상 60만원, 준우승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오후에 열린 댄스대회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팀별 개성과 에너지로 담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Ri.Hey(리헤이·BUMSUP 크루), D_YJ(OVERAIZ 크루), KALVIN KIM 등 전문 댄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팀의 표현력과 완성도, 무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이 직접 선bio인 저지쇼도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댄스대회에서는 이일여자고등학교 'Tempest'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Freeze' 팀은 최우수상, 원광여자중학교 'Won't' 팀은 우수상, 이남남성여자중학교 'Intimacy' 팀은 인기상을 각각 받았다.

수상팀에는 상패와 함께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인기상 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대회장에서는 참가 청소년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철권 이벤트 게임을 통해 우승자에게 상금 10만원과 애플워치를 증정했으며, 애플워치 2개와 에어팟 3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 추첨 이벤트도 마련됐다.

친구들과 대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무료 '인생네컷' 촬영 공간도 운영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주기전대학은 대회 종료 이후 E스포츠와 댄스대회 우수팀이 소속된 학급에 치킨을 제공하는 후속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스포츠대회 우수상을 받은 우석고등학교 'Never give up' 팀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쁘다"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댄스대회 대상을 차지한 이일여자고등학교 'Tempest' 팀은 "팀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하면서 준비한 무대를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며 "전문 댄서분들에게 직접 심사를 받고 좋은 평가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성철 전주청소년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경기와 무대의 주인공이 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전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찬 전주기전대학 총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순위를 경쟁하는 자리를 넘어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승전결' 대회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전주기전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 보물 한번에’ ... 369 투어, 타 지역 관광객들에 호응

3미·6품·9경을 직접 경험... 130여명 참여

정읍시가 역사문화와 도시재생, 먹거리·특산품·관광명소를 하나로 엮은 '정읍 369 투어'를 운영해 타 지역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 369 투어'는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고 정읍의 보물인 3미·6품·9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형 여행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30여명이 참여했다. 여름 방학에는 자녀와 함께 정읍을 찾은 가족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동화농민혁명 관련 역사 현장과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등을 둘러보며 정읍의 역사와 이야기를 배웠다. 이어 정읍의 대표 먹거리인 3미를 맛보고 6품을 구입한 뒤 9경을 둘러보며 정읍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도 여행길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원도심의 모습과 역사·먹거리·특산품·자연경관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리농협, 우렁이 종패 공급 지원

고창 해리농협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약 250농가가 723ha 규모의 논에서 우렁이 농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수령원지력 한빛원지력본부의 1억9천 500만원 지원을 바탕으로 우렁이 종패를 공급하고 있다. 해리농협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종패 공급과 함께 작기방사, 논물 관리, 생육관리 등 현장 기술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우렁이농법은 모내기 이후 초기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제초제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재배기술이다. 제초 효과뿐 아니라 토양 생태계 보전과 논외 건강성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리농협은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참여 농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한국수령원지력의 지역상생 지원을 통해 우렁이 종패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영농 부담을 낮추고, 농가들은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논잡초 방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친환경 재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져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표상규씨는 "잡초 방제 부담이 줄고 논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이라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안정적으로 우렁이를 공급받고 재배기술 지도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환경도 지키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해 고창 친환경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우렁이 농법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며 지역 친환경 농업의 모범 사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농협, 폭염 대비 생수 1만병 지원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수 1만병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고창지역은 최근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영농활동하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하는 생수는 고창읍 6,000병, 고수면 2,000병, 부안면 2,000병 등 총 1만 병으로 각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덕근 고창농협 조합장 및 임원진과 이미정 농협 중앙회 고창군지부장 참석했다. 지역 행정에서도 박병섭 고창읍장, 전기홍 부안면장, 김성숙 고수면장이 함께해 농협과 행정이 농업인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여성단체협 등, 광한루원서 얼음생수 나눔



남원시(시장 양승모)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휴가철 주말을 맞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시원한 여름 바캉스를 선사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인 광한루원 일원에서 얼음생수 나눔 행사를 지난 8월 8일 운영했다.

이번 나눔 활동에는 단순한 생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비롯해 요천 생태습지공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등 숨은 명소들을 안내하고, 남원시의 주요 시정과 다채로운 축제 소식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함께 배부하며 관광도시 남원의 매력을 넓혔다.

이은진 회장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지친 관광객들이 시원한 생수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남원의 따뜻한 인심과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